

2024년  
고1  
10월 학평

2024년 시행 고1 10월 학평 국어 문학 | 민농가, 박장대 변형 문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저기 가는 저 노농(老農)아 이내 농가(農歌) 살  
펴 들소

나라의 믿는 근본 우리 백성 그 아니며  
우리 백성 믿는 근본 이내 농사 아니겠나  
크고도 저 큰 사업 천하 대본 이뿐이라  
밭이랑에 좋은 씨앗 일귀 묵힐 자리 살피  
농사 준비 이 모춘(暮春)에 때 지키기 급선무라  
(중략)

문노라 나라 조세 하은주(夏殷周)\*와 어떠한고  
공법(貢法) 조법(助法) 조세제는 하은(夏殷) 때에  
끼친 법이라

주 나라 철법(徹法)은 십일지세(什一之稅) 그 아  
닌가

이렇듯 끼친 제도 역대 성조 본을 받아  
가볍게 부과함은 이웃까지 좋을시고  
어찌하여 권세부려 세금 고하 못 정하니  
더할 세금 무슨 일이고 가렴(苛斂)은 어이 할꼬  
여러 나라 어디이고 길쌈 허탕 오늘이라  
봄엔 새 실 먼저 팔고 여름 곡식 다시 내니  
중엄하다 저 조세를 어찌 아니 두려울까  
아아 농부들아 농사 때를 놓치게 되면  
이내 중세(重稅) 어이 할꼬 번거롭다 사양 마오  
이 사이 저 사이에 섞여 핀 저 악초(惡草)를  
어찌하여 용서할까 모든 뿌리 제거하세  
제거 못 하면 어이 하리 송인(宋人) 알묘(攄苗) 이  
때문이라

상한 새싹 물론이요 뿌린 씨와 자라는 씨에 가정  
(苛政)이라

금년에 못 다 하면 명년 제초 누가 할꼬  
새싹 나와도 안 여무니 악초의 탓 그 아닌가  
묘(苗) 논에 있는 가라지 간신과 어떠한고  
조 밭에 있는 쪽정이 오랑캐와 어떠한고

㉡풍우 뒤에 저 황충(蝗蟲)\* 도적떼처럼 생기는구

나

빠어난 저 큰 벼는 군자처럼 곤고(困苦)하다\*

이내 농부 아니라면 우리 군자 기를손가  
하자꾸나 이내 농사 더욱 바빠 하자꾸나  
세금도 내려니와 현인 보필 앓을 손가  
소인 쫓고 군자 등용 왕실의 큰 정치라  
악초 제거 좋은 벼 재배 전가(田家)의 급무로다  
아아 저 농부야 다시 힘써 하자꾸나

- 정해정, 「민농가」 -

\* 하은주: 고대 중국의 세 국가인 하, 은, 주를 일  
컸는 말.

\* 황충: 메뚜기.

\* 곤고하다: 형편이나 처지 따위가 딱하고 어렵  
다.

(나)

비옹(否翁)이 정원을 거닐고 있는데, 패랭이를 쓰  
고 동달이를 입은 어떤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다. 걸  
음을 멈추고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갑자기 어  
떤 ㉠객이 이르러 깜짝 놀라 말했다.

“이 사람은 광주(廣州)의 무두장이 거복(巨福)입  
니다. 그대는 어찌하여 이 사람과 마주 앉아 있습니  
까?”

그러자 거복이 발끈 노하여 말했다.

“무두장이도 사람일 뿐입니다. ㉡어찌하여 마주  
앉지 못한단 말입니까?”

비옹이 말했다.

“무두장이는 살생을 업으로 삼으니, 군자가 무두  
장을 어질게 여기지 않는다.”

거복이 말했다.

“사냥하여 사슴 잡는 것을 호방하게 여기는 것, 낚  
시질하여 물고기 잡는 것을 고아(高雅)하게 여기는  
것, 벼슬하여 사람을 죽여 영예로워지는 것, 도축하  
여 소를 죽여 배불리 먹는 것, 이 모두 살생한다는  
점은 똑같습니다.”

비옹이 또한 발끈 노하여 말했다.

“네가 감히 벼슬아치가 되고자 하느냐? 사냥하고  
낚시하고 벼슬하면서 죽이는 것은 모두 자기의 뜻으  
로 살생하는 것이다. 너는 남의 지시를 받아 도축하  
여 가축을 괴롭혀서 돈을 구하면서도 오히려 비루하

지 않다고 여기느냐?”

거복이 피식 웃으며 말했다.

“소인은 어리석고 우둔하니, 벼슬하는 일을 어디에서 들었겠습니까? 소인이 일찍이 재상과 이웃이 되어 재상을 보았습니다. 어떤 ㉞객이 왔는데, 재상의 키가 작은데도 그 객은 키가 크다고 말했으며, 재상의 허리가 굽었는데도 그 객은 곧다고 말했습니다. 이 객이 가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왔는데,

객의 이름이 이미 황지(黃紙)\*에 적혀 있었습니다. 한편, 재상의 키가 작는데 다른 ㉞객은 키가 작다고 말했고, 재상의 허리가 굽었는데 그 객은 굽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객이 가고 난 뒤, 재상은 이전에 왔던 객을 급히 불러와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키가 작다’, ‘허리가 굽었다’라고 말했던 객은 이미 형벌을 받아 죽었다는 말이 들렸고, 귓속말을 들었던 객이 다시 왔는데 이미 관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이의 지시를 받는 것도 똑같고, 다른 이를 죽여서 무언가를 구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다만 작은 것을 작다 하고 굽은 것을 굽었다고 말한 사람을 가축을 괴롭히는 것에 비견할 수는 없겠으나, 높은 벼슬과 많은 재물이 서로 얼마만큼 거리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비용이 멍해져 억지로 응답했다.

“네가 비교한 것에는 여전히 차이점이 있다. ㉞너는 손으로 흥기를 잡아 똥이 신발을 더럽히고 피가 옷소매를 적신다. 벼슬하는 자의 경우엔 이런 것이 있느냐?”

거복이 또 피식 웃으며 말했다.

“옹께서 분간하시는 것이 과연 이처럼 보잘것없군요. 남의 작은 키를 크다고 하고 남의 굽은 허리를 곧다고 하여 이름이 적힌 종이를 누렇게 물들이는 것이 똥에 더럽혀진 신발에 가깝지 않습니까. 또 작은 키를 작다 하고 굽은 허리를 굽었다고 한 사람을 죽여, 입은 옷을 붉게 물들이는 것이 어찌 피에 젖은 옷소매와 다르겠습니까. 법을 교묘히 엮고 형벌을 멋대로 사용하는 것은 또 어떻습니까. 저는 저의 도끼를 휘두르는 자이니, 소인의 어리석음과 우둔함은 단지 고향 이웃들에게만 알려질 뿐입니다. 옹께서는 선비이신데, 사실의 정밀함을 궁구하지 않은 채 단지 대략적인 것만 논하고, 마음보의 세밀함은 살피지 않은 채 단지 드러난 현상만 갖고 말씀하시어, ㉞ 낡은 풍속에 부화뇌동해서 세상 사람이 두려워하는

자를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이 업신여기는 자를 업신여기시는군요. 아, 개탄스럽지 않겠습니까.”

비용이 이에 말문이 막혀 조용히 인사하고, 읍하고 문에서 전송해주었다.

- 유희, 「박장대(剝匠對)」 -

\* 황지: 과거 급제자의 성명을 기록하는 데 사용된 누런색 종이.

학평 변형 문제

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와 달리 (가)는 청자를 설정하고 청유형을 활용하여 자신이 요구하는 바를 전달하고 있다.
- ② (나)와 달리 (가)는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가)와 달리 (나)는 중국의 고사와 경전을 인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 ④ (가)와 (나) 모두 대화를 통해 인물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역순행적 구성을 통해 긍정적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학평 변형 문제

2. ㉞~ ㉞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㉞: 청자에게 질문을 던짐으로써, 청자의 흥미를 이끌어내는 모습이 드러난다.
- ② ㉞: 자연물을 인간에 빗댄 표현으로 당대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 ③ ㉞: 자신을 무시하는 상대에게 느끼는 분노가 드러난다.
- ④ ㉞: 자신과의 차이점을 드러내기 위해 상대의 열악한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⑤ ㉞: 일정한 주견이 없이 남의 의견을 따르는 상대의 태도를 지적하는 모습이 드러난다.

학평 변형 문제

3.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신분과 지위를 통해 사람을 판단한다.
- ② ㉡는 구하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의 지시를 따른다.
- ③ ㉢은 얻고자 하는 바가 있어 드러난 현상만 갖고 말하며 부화뇌동한다.
- ④ ㉠은 낯은 풍속을 대변하는 인물이다.
- ⑤ ㉡와 ㉢은 동일한 대상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함으로써 서로 다른 상황에 처한다.

학평 변형 문제

4.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가)와 (나)는 비판의 주체 또는 대상으로 등장하는 사대부를 통해, 조선 후기 사회의 문제 상황을 바라보는 사대부 작가의 의식 세계를 형상화하고 있다. (가)의 화자인 사대부는 농부의 삶을 가치 있게 바라보며 농부가 해야 할 일을 강조함과 동시에 정치 현실을 농사의 상황에 빗대어 비판하는 주체로 나타난다. (나)의 등장인물인 사대부는 무두장이의 삶을 낮추어 보는 위선적 태도를 보여 주는 인물로 그려져 비판의 대상이 된다.

- ① (가)의 ‘밭이랑에 좋은 씨앗 일귀 묵힐 자리 살’ 피고 ‘모춘’에 ‘때’를 ‘지키’라는 것에서 같은 농부로 화자를 설정하여 시기에 맞게 농부가 해야 할 일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② (가)의 농부에게 ‘악초’를 ‘제거’하는 것과 ‘소인’을 ‘쫓’는 ‘정치’의 필요성을 함께 말하는 것에서 농사의 상황에 빗대어 정치 현실을 비판하는 화자인 사대부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군.
- ③ (나)의 ‘너는 손으로 흥기를 잡아 똥이 신발을 더럽’힌다는 비유의 말에 대해 ‘소인의 어리석음과 우둔함은 단지 고향 이웃들에게만 알려질 뿐’이라고 거북이 대답한 것에서 거북을 본받을 만한 새로운 인간상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

군.

- ④ (가)의 화자인 사대부가 ‘더할 세금 무슨 일’이냐고 하는 것과, (나)에서 거북이 ‘법을 교묘히 엮고 형벌을 멋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등장인물인 사대부에게 말하는 것에서 당대 백성들의 현실 정치에 대한 비판의식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가)의 화자인 사대부가 ‘농사’를 ‘천하 대본’이라고 하는 것에서 농부의 삶을 가치 있게 보는 모습을, (나)의 등장인물인 사대부가 ‘네가 감히 벼슬아치가 되고자 하느냐’고 하는 것에서 신분 상승을 꾀하는 무두장이의 삶을 낮추어 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5. (가)와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와 (나) 모두 작가의 현실 비판의식이 드러난다.
- ② (가)와 (나) 모두 청자를 설정하여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 ③ (가)와 (나) 모두 백성이 하는 일의 가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드러난다.
- ④ (가)와 (나) 모두 사대부가 작품에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 ⑤ (가)와 (나) 모두 당대의 시대 현실이 반영되어 있다.

【6~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저기 가는 저 노농(老農)아 이내 농가(農歌) 살피든소  
 나라의 믿는 근본 우리 백성 그 아니며  
 우리 백성 믿는 근본 이내 농사 아니겠나  
 크고도 저 큰 사업 천하 대본 이뿐이라  
 ㉠밭이랑에 좋은 씨앗 일귀 묵힐 자리 살피  
 농사 준비 이 모춘(暮春)에 때 지키기 급선무라  
 (중략)  
 문노라 나라 조세 하은주(夏殷周)\*와 어떠하고  
 공법(貢法) 조법(助法) 조세제는 하은(夏殷) 때에  
 끼친 법이라  
 주 나라 철법(徹法)은 십일지세(什一之稅) 그 아

닌가

이렇듯 끼친 제도 역대 성조 본을 받아  
가볍게 부과함은 이웃까지 좋을시고  
어찌하여 권세부러 세금 고하 못 정하니  
더할 세금 무슨 일인고 가렴(苛斂)은 어이 할꼬  
여러 나라 어디인고 길쌈 허탕 오늘이라  
봄엔 새 실 먼저 팔고 여름 곡식 다시 내니  
중엄하다 저 조세를 어찌 아니 두려울까  
아아 농부들아 농사 때를 놓치게 되면  
이내 중세(重稅) 어이 할꼬 번거롭다 사양 마오  
이 사이 저 사이에 섞여 핀 저 ㉠악초(惡草)를  
어찌하여 용서할까 모든 뿌리 제거하세  
제거 못 하면 어이 하리 송인 알묘(宋人掘苗) 이  
때문이라

상한 새싹 물론이요 뿌린 씨와 자라는 씨에 가정  
(苛政)이라

금년에 못 다 하면 명년 제초 누가 할꼬  
새싹 나와도 안 여무니 악초의 탓 그 아닌가  
묘(苗) 논에 있는 가라지 간신과 어떠하며  
조 밭에 있는 쪽정이 오랑캐와 어떠한고  
풍우 뒤에 저 황충(蝗蟲)\* 도적떼처럼 생기는구나  
빠어난 저 큰 벼는 군자처럼 곤고(困苦)하다\*  
이내 ㉡농부 아니라면 우리 군자 기를손가  
하자구나 이내 농사 더욱 바빠 하자구나  
세금도 내려니와 현인 보필 앓을 손가  
소인 쫓고 군자 등용 왕실의 큰 정치라  
악초 제거 좋은 벼 재배 전가(田家)의 급무로다  
아아 저 농부야 다시 힘써 하자구나

- 정해정, 「민농가」 -

\* 하은주: 고대 중국의 세 국가인 하, 은, 주를 일컫는 말.

\* 황충: 메뚜기.

\* 곤고하다: 형편이나 처지 따위가 딱하고 어렵다.

하고 있다.

- ④ 풍자적 어조를 통해 비극적 상황에 희극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
- ⑤ 촉각적 이미지와 공감각적 이미지를 동시에 사용하여 대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 7. 밑줄 친 대상 간의 관계가 ㉠ 악초, ㉡ 농부 간의 관계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돋은 새를 알리고 기는 도적을 살피고 / 쇼 말은 큰 구실을 맡겨 다 기름 직하거니와 / 저 매는 땡잡아 절로 바치든가 나는 몰라 호노매라.  
- 작자 미상
- ② 두터비 프리를 물고 두힘 우희 치드라 안자 / 것 년 산(山) 브라보니 백송골(白松鵲)이 씨 잇거늘 가슴이 금즉하여 풀덕 뛰어 내뚫다가 두힘 아래 젓바지거고. / 모쳐라 놀랜 넬식만정 에 혈질 번 호래라.  
- 작자 미상
- ③ 나뉘야 청산(靑山)에 가자 범나뉘 너도 가자. / 가다가 저무러든 곳되 드러 조고 가자. / 곳에서 푸디접 호거든 넙헤셔나 조고 가자.  
- 작자 미상
- ④ 장공에 씻는 솔기 눈 삶핍은 무슨 일고 / 석은 쥐를 보고 빙빙 돌고 가지 않는구나 / 만일에 봉황을 만나면 웃음거리 될까 호노라.  
- 김진태
- ⑤ 곰병이 매암이 되야 느래 도쳐 느라올라 / 노프나 노픈 남게 소리는 조커니와 / 그 우희 거의줄이시니 그를 조심호여라.  
- 작자 미상

### 6.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삶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의문형 문장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③ 연쇄법을 통해 상황의 비극성을 심화하여 표현

8.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사람은 죽어도 내야 할 세금이 남아 형제에게 까지 미치게 되니, 유월이 되면 벌써 세금 독촉하는 아전이 문을 걸어차는데, 그 소리가 사자의 울음소리 같아 산악을 뒤흔든다. 세금 낼 돈이 없다고 하면 가마솔도 빼앗아 가고 송아지도 끌고 가고 돼지도 끌고 간다. <중략> 술한 원한을 천지 사방에 호소할 데 없고, 백성이 모두 다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슬퍼할 수 없다. 어진 이는 움츠려 있고 소인배들이 날뛰니, 봉황은 입을 다물고 까마귀가 울어 대는 꼴이다.

- 정약용, 「파리를 조문하는 글」

- ① 윗글의 '여름 곡식 다시 내니'나 <보기>의 '유월이 되면 벌써 세금 독촉하는 아전이 문을 걸어차는데'는 가혹한 세금으로 고통받는 백성의 모습을 드러내는 표현이겠군.
- ② 윗글의 '가라지'와 <보기>의 '소인배'는 임금의 눈을 가려 군자의 등용을 막고 가혹한 정치를 이끄는 간신을 의미하겠군.
- ③ 윗글의 '악초', '황충'과 <보기>의 '아전', '까마귀'는 백성들을 괴롭히는 대상을 의미하겠군.
- ④ 윗글의 '실', '곡식'과 <보기>의 '가마솔', '송아지', '돼지'는 백성들이 세금으로 빼앗긴 것들을 나타내겠군.
- ⑤ 윗글의 '큰 벼'와 <보기>의 '입 다문 봉황'은 당대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해결해 주는 대상이겠군.

9.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문노라 나라 조세 하은주와 어떠하고'에서 당대 조선 사회의 조세 제도가 중국과 달리 체계적이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 ② '크고도 저 큰 사업 천하 대본 이뿐이라'에서 당대 조선 사회에서 농업이 중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③ '중엄하다 저 조세 어찌 아니 두려울까'에서 당대 조선 사회에서 농민들이 높은 세금으로 고통받았음을 알 수 있다.
- ④ '조 밭에 있는 쪽정이 오랑캐와 어떠하고'에서 당대 조선 사회에서 오랑캐의 침략으로 백성이 괴롭힘을 당했음을 알 수 있다.
- ⑤ '풍우 뒤에 저 황충 도적떼처럼 생기는구나'에서 당대 조선 사회에서 도적떼가 백성을 괴롭혔음을 알 수 있다.

10. 다음 중 ㉠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쓴 나물 데온 물이 고기도곤 맛이 이세. / 초옥(草屋) 좁은 줄이 그 더욱 내 분(分)이라. / 다만 당 님 그린 탓으로 시름 계워하노라.
- ② 두류산(頭流山) 양단수(兩端手)를 네 듯고 이제 보니 / 도화(桃花) 쓴 붉은 물에 산영(山影)조초 잠겼세라. / 아희야 무릉(武陵)이 어디오 나는 엔가 흐노라.
- ③ 오늘도 다 세거나 호미메고 가자스라. / 네논 다 메어든 네논 점 매어주마. / 올 길해 뽕따다가 누에 먹켜 보자스라.
- ④ 짚방석 내지 마라 낙엽엔들 못 앉으랴. / 술불 혀지 마라 어제 진 달 돌아온다. / 아해야 박주산채(薄酒山菜)일망정 없다 말고 내어라.
- ⑤ 뿔버들 같히 것거 보내노라 님의손뎅 / 자시는 창(窓) 밧기 심거 두고 보쇼셔. / 밤비에 새 닙곳 나거든 날인가도 너기쇼셔.

【11~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비용(否翁)이 정원을 거닐고 있는데, ㉠패랭이를 쓰고 동달이를 입은 어떤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다.

## 정답 및 해설

### 1. 정답 ①

(가)의 '저기 가는 저 노농아'에서 농부는 시적 화자의 청자로 호명되고 있다. 또한 '이내 농가 살피 들소'에서 시적 화자는 청유형으로 농가를 들어달라고 부탁하고 있다. '아아 저 농부야 다시 힘써 하자구나'에서도 농사일에 힘쓰기를 권하는 청유형 문장이 나타난다. (나)는 청자는 등장하나, 요구하는 바를 청유형의 형태로 전달하지는 않았다.

② (가)와 (나) 모두 음성 상징어는 나타나지 않는다.

③ (가)에는 중국의 고사가 인용되어 있으나, (나)에서는 중국의 고사나 경전의 인용은 찾아볼 수 없다.

④ (나)는 대화를 통해 인물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으나, (가)에서는 '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⑤ (가)와 (나) 모두 역순행적 구성은 나타나지 않는다.

### 2. 정답 ①

청자를 호명하며 말을 건네고 있으나, 질문을 던지고 있지는 않다.

② 풍우 뒤에 귀뚜라미가 창궐하는 모습을 도적떼에 빗댄 표현이 나타난다. 이는 도적떼가 창궐하여 농민이 고통받던 당대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③ 자신(거북)을 무시하는 상대(객)의 발언에 대하여 거북이 노하여 말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④ 자신(비용)과의 차이점을 드러내기 위해 상대(거북)의 열악한 처지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⑤ 일정한 주견이 없이 남(세상 사람)의 의견을 따르는 상대(비용)의 태도를 지적하는 모습이 드러나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 3. 정답 ③

⑥는 재상에게 얻고자 하는 바가 없어, 직언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형벌을 받게 되었다. 윗글에서 드러

난 현상만 갖고 말하며 부화뇌동하는 것은 비용이다. 따라서 적절한 설명이 아니다.

① ㉠는 거북의 직업이 무두장이라는 이유로, 비용이 가까이할 만한 인물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신분과 지위를 통해 사람을 판단하였다.

② ㉡는 황지에 이름을 올리기 위해 재상에게 아침하며, 지시를 따르고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④ ㉢는 거북을 업신여겼으며, 결과적으로 비용은 이에 동조하였다. 이에 대해 거북은 비용이 드러난 현상만 보아 낡은 풍속에 부화뇌동하였다고 말하였으므로, ㉠는 낡은 풍속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⑤ 키가 작고 허리가 굽은 재상에게 ㉣는 재상의 키가 크고 허리가 곧다고 말했으며, ㉤는 재상의 키가 작고 허리가 굽었다고 말했다. 그 결과 ㉣는 황지에 이름이 적힐 수 있었으며, ㉤는 형벌을 받아 죽었다. 따라서 ㉣와 ㉤는 동일한 대상인 재상에 대하여 상반된 평가를 함으로써 서로 다른 상황에 처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4. 정답 ②

(가)의 화자인 사대부가 농부에게 '악초'를 '제거'하는 것이 '전가의 급무'이며, '소인'을 '쫓'는 것이 '왕실의 큰 정치'라며 필요성을 함께 말하는 것에서 농사의 상황에 빗대어 정치 현실을 비판하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① <보기>에 따르면 (가)의 화자는 사대부이다. (가)는 사대부인 화자가 농부를 청자로 설정하여 농부가 해야 할 일을 말해 주고 있다. 따라서 적절한 설명이 아니다.

③ (나)에서 '거북'은 작가 의식을 대변하는 인물이지만, 거북이 스스로를 어리석고 우둔하다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에서 작가가 거북을 본받을 만한 새로운 인간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④ (나)는 '거북'의 말이므로 당대 백성들의 인식이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거북이 작가 의식을 대변하는 인물이라고 보면 사대부 작가의 인식이 드러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으며 (가)의 화자는 사대부이므로, 화자가 한 말인 '더할 세금 무슨 일'이냐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당대 백성들의 어려움에 대한 사대부 작가의 인식이다.

⑤ (가)의 화자인 사대부가 '농사'를 '천하 대본'이라

고 하는 것에서 농사를 중요한 가치로 여겨 농부의 삶을 가치 있게 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나)의 등장인물인 사대부가 '네가 감히 벼슬아치가 되고자 하느냐'고 하는 것은, 군자와 무두장이 살생한다는 점에서 똑같다고 하는 거북의 말에 대하여 노하여 말한 것이다. 따라서 신분 상승을 꾀하는 무두장의 삶을 낮추어 본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5. [정답] ③

(가)에는 농사를 짓는 농부의 삶을 가치 있게 바라보는 모습이 드러나나 (나)에서는 무두장이 일의 가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찾아볼 수 없다.

① (가)에서는 작가의 정치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이, (나)에서는 작가의 양반 사회의 위선과 권력을 남용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이 드러난다.

② (가)는 농부를 청자로 설정하여 내용을 전개하고 있고, (나)는 화자와 청자가 있는 대화를 통해 내용을 전개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④ (가)는 시적 화자와 백성을 가려주구하는 간신으로, (나)는 비운이란 등장 인물로 사대부가 작품에 직접 드러나 있다.

⑤ (가)에는 농민이 가혹한 세금으로 고통받던 조선 후기의 시대 상황이, (나)에는 신분과 지위로 사람을 평가하며, 양반이 권력으로 횡포를 부리던 조선 후기의 신분제 사회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다.

6. [정답] ②

윗글의 '중엄하다 저 조세를 어찌 아니 두려울까'에서는 조세에 대한 두려움의 감정을, '어찌하여 용서할까'에서는 용서할 수 없다는 감정을 설의법을 활용하여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① 윗글에서 삶의 모순을 드러내는 반어적 표현은 찾아볼 수 없다.

③ 윗글에서 상황의 비극성을 심화시키는 연쇄법은 찾아볼 수 없다.

④ 윗글에서 희극적 요소를 가미하는 풍자적 어조는 찾아볼 수 없다.

⑤ 윗글에서 대상을 구체화시키는 공감각적 이미지와 촉각적 이미지는 찾아볼 수 없다.

7. [정답] ②

악초는 농부를 괴롭히는 대상이다. '두터비'는 백성을 괴롭히는 지배 계층을, '프리'는 백성을 의미하므로, ㉠과 ㉡의 관계와 유사하다.

① 선지의 시조는 닭의 역할, 개의 역할, 소와 말의 역할을 나열하고 있다. 따라서 닭과 개는 각자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따라서 ㉠과 ㉡의 관계와 유사하지 않다.

③ 화자는 나비에게 청산에 가자고 말하고 있다. 자연에서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형상화된 것이라는 점에서 나비와 청산은 모두 자연을 의미한다. 따라서 ㉠과 ㉡의 관계와 유사하지 않다.

④ 창공을 나는 솔개가 먹지 못하는 썩은 쥐를 보고 아쉬움에 빙빙 돌고 있다. 썩은 쥐는 솔개가 먹으면 안 되는 것이다. 따라서 ㉠과 ㉡의 관계와 유사하지 않다.

⑤ '매암'은 벼슬길에 처음 진출한 신진 관료를, '거미줄'은 험난한 정치 현실과 신진 관료가 빠질 수 있는 유혹을 의미한다. 따라서 거미줄은 매암이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과 ㉡의 관계와 유사하지 않다.

8. [정답] ⑤

윗글에서 '큰 벼'는 간신과 가혹한 정치 때문에 곤고한 군자를 의미하며, '입 다문 봉황'은 지금의 현실을 해결할 의지가 없는 임금을 의미한다. 따라서 둘 다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으므로 적절한 설명이 아니다.

① '여름 곡식을 다시 내니'와 <보기>의 '유월이 되면 벌써 세금을 독촉한다'에서 곡식을 수확하기도 전에 세금부터 내야 하는 백성의 고통이 드러난다. 따라서 적절한 설명이다.

② 윗글에서 화자는 가라지를 간신에 비유하고 있으며, <보기>에서 '소인배'는 움츠려 있는 '어진 이'와 대비되고 있으므로 '간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윗글에서 농사를 망치는 악초와 황충은 백성을 괴롭히는 가혹한 정치와 오랑캐, 도덕떼를 의미하며, <보기>의 세금을 재촉하는 아전과 봉황이 입을 다물자 울어 대는 까마귀는 백성을 괴롭히는 지배 계층을 의미한다. 따라서 적절한 설명이다.

④ 윗글에서 '실'과 '곡식'은 백성이 더 내는 세금을 의미하며, <보기>의 가마술, 송아지, 돼지 역시 가

혹한 세금을 감당하지 못해 빼앗긴 것들이다. 따라서 적절한 설명이다.

9. [정답] ①

‘문노라 나라 조세 하은주와 어떠한고’는 중국의 조세 제도와 우리나라의 조세 제도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조세 제도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고사를 인용하여 우리나라 조세 제도가 백성을 괴롭히고 있다는 화자의 주장에 신뢰성을 부여하고, 강조하는 것이다. 따라서 적절한 설명이 아니다.

② ‘농자천하지대본’을 의미하며, 농업을 중시했던 당대 조선 사회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다.

③ 조세의 과중함과 이에 대한 두려움이 드러난 구절로, 가혹한 세금을 고통받던 당대 조선 사회의 현실이 반영되어 있다.

④ 쪽정이를 오랑개에 빚댄 표현으로, 잦은 오랑개의 침략으로 고통받던 당대 조선 사회의 현실이 반영되어 있다.

⑤ 황충을 도적떼에 빚댄 표현으로, 도적떼가 창궐하던 당대 조선 사회의 현실이 반영되어 있다.

10. [정답] ③

농사일에 근면하고, 상부상조해야 함을 강조하는 시조이다. ㉠은 농부가 해야 할 일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화자의 태도가 가장 유사하다.

① 안분지족의 삶의 태도가 나타난다.

② 자연에 묻혀 사는 삶에 대한 화자의 만족감이 나타난다.

④ 안분지족의 삶의 태도가 나타난다.

⑤ 이별한 님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표현한 시조이다.

11. [정답] ①

거복은 재상과 두 객의 일화를 제시하여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고 있으므로 가장 적절한 설명이다.

② 거복의 말에서 인과관계나 문제 해결 방안은 찾을 수 없다.

③ 거복은 성현의 말을 인용하지 않았다.

④ 거복은 유려한 느낌을 주기 위해 비유가 많은 문장을 사용하지 않았다.

⑤ 거복은 유추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12. [정답] ③

㉠, ㉡, ㉢는 거복이 재상의 이웃이던 시절 본 사람으로 아침을 하여 관직을 얻은 사대부이다.

㉣는 비옹이 거복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 비옹에게 거복의 신분과 직업을 얘기해준 사람이다.

㉤, ㉥는 거복이 재상의 이웃이던 시절 본 사람으로 재상에게 직언을 하여 형벌을 당한 사대부이다.

따라서 ①, ②, ④, ⑤는 적절한 선지가 아니다.

13. [정답] ⑤

윗글은 설의적 표현과 대화 형식의 전개로 작가의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맞으나, 이는 작품의 표현을 통해 작품의 의미를 해석하는 내재론적 관점에 해당한다.

① 윗글의 ‘소인은 어리석고 우둔하니, 벼슬하는 일을 어디에서 들었겠습니까?’에서 자목이 스스로를 ‘소인’이라 낮추어 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신분제에 따른 계급의식이 드러난 부분이다. 따라서 맥락주의 비평에 해당한다.

② 거복의 말을 통해 양반의 위선을 드러내고, 신분과 지위 차이를 이유로 사람을 업신여기던 당대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맥락주의 비평에 해당한다.

③ 재상이 자신에게 직언한 객에게 형벌을 내려 죽였다는 것에서 당세 권세 있는 양반들은 사람을 죽여도 처벌을 받지 않았고 따라서 권력의 횡포가 심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맥락주의 비평에 해당한다.

④ 작가는 조선에서 천대받던 직업인 무두장이 거복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사대부 양반의 위선을 꼬집고 있다. 따라서 진보적인 작가 의식을 보여 준다. 이는 작가의 이념과 함께 당대 무두장을 천대하던 사회적 편견을 분석에 해당하므로 맥락주의 비평이다.

14. [정답] ④

윗글에서 거복은 작가 의식을 대변하는 인물이기는 하나, 거복의 인물 됨됨이를 드러내거나 모범이 될 만한 부분을 제시한 것은 아니므로 작가가 거복을 새로운 인간형으로 제시한 것은 아니다.

① 윗글과 달리 <보기>에는 ‘예전에 듣기를 유(儒)